

시리아의 스웨이다(Sweida)주(州) 샤하바(Shahaba), 살카드(Salkad) 에라(Era)지역의 드루즈(Druze)족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MFR(Mid-east Field Research) 10기 훈련팀¹

1. 일반개요

(1) 종파 유래

드루즈(Druze)종파는 시아(Shiah)파의 이스말리(Ismali)분파에서 유래 되었다. 이스말리파는 무함마드(Muhammad)의 사위이자 직계 칼리프인 알리(Ali)를 따르는 분파로서 정권다툼에 본래 위치를 잃은 분파이다. 그들은 정통적으로 무함마드 (Muhammad)의 후계자 자손이지만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용당하며 핍박을 피해 750년과 909년 사이에 지하조직화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두 명의 지도자인 이스말리 (Ismali)와 무사 (Musa)를 중심으로 분리되게 된다. 이스말리파는 튀니지에서 예멘 (Yemen)까지 많은 수의 추종자를 확보하며 909년에서 1171년의 기간 동안 그들만의 독립적인 파티마 이슬람 왕조를 건설한다. 파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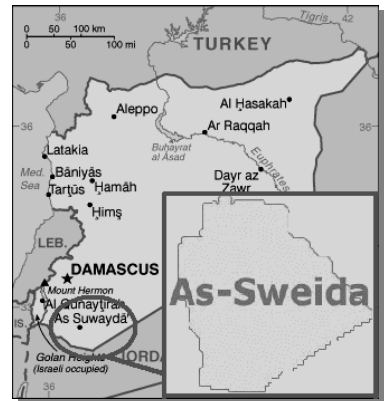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MFR(Mid-east Field Research) 10기 훈련팀 에서 2006년 7월 6일 - 26 일까지 시리아 스웨이다주 사하바, 살카드, 에라, 야발산을 중심으로 드루즈족을 현장조사한 내용이다.

왕조은 이집트 (Egypt)를 중심으로 번성했으며 시아 (Shiah) 이스말리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다. 드루즈(Druze)는 파티마 왕조로부터 등장하는데, 파티마 왕조의 여섯 번째 칼리프인 알 하킴(al- Hakim)이 그 시초가 된다. 그는 이슬람 개혁을 통하여 그의 추종자들을 세우고 함자(Hamza)와 더불어 드루즈(Druze)교의 기반을 만든다. 드루즈(Druze)교는 알 하킴의 사망 후 제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들의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드루즈(Druze)는 소수 종파이긴 했으나 이슬람 역사에 있어서 십자군을 다섯 번이나 막아내고 이슬람 영웅인 살라딘(Saladin)(Sala-ha-dine)과 동맹하여 싸움으로서 이슬람 제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2) 종파 분포

대부분의 드루즈(Druze)인들은 레바논(Lebanon) 남부 산간지역, 시리아(Syria)의 남동부 산간지역 그리고 이스라엘(Israel)의 골란 고지에 주로 거주하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Israel)이 골란고원(Golan Plat.)을 차지했을 때 드루즈(Druze) 사람들이 골란고원(Golan Plat.)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개척한 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스웨이다(Sweida) 지역은 드루즈(Druze) 사람들에게 의해서 개간되었으며 이전에는 베두원들이 조금씩 살던 사막지역에 불과했다. 오래전 스웨이다(Sweida) 지역과 살카드(Salkhad) 지역 사이 있었던 거대한 화산활동으로 인해 스웨이다(Sweida) 인근지역은 비옥한 용암대지가 형성되어서 사과나무, 올리브 나무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드루즈(Druze) 사람들은 땅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3) 정체성

1) 연령, 지역별 외래 문물 선호도

스웨이다(Sweida)에서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살카드(Salkhad), 사하바(Shahaba), 에라(Era)였다. 외국인을 많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호감을 가지고 인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스웨이다(Sweida) 지역, 버스터미널 인근에 북한대사관이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남, 북 중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2) 종파에 대한 자부심

이들은 종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스웨이다(Sweida) 중심 지역에는 술탄 아트리쉬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프랑스(France)와의 독립전쟁에서

드루즈(Druze) 일파를 대표하고 아트라쉬 가문을 대표해서 크게 활약한 장군이었다고 한다. 현재 아트라쉬 가문은 사람들은 스웨이다(Sweida)에 약 2000명 정도이며 오베이드 가문은 현재 약 200명 정도이다.

3) 주 종족, 타민족과의 동화도

드루즈(Druze)는 시아(Shiah)파에서 갈라져나온 종파이고 이스마일리와도 유사하다. 때문에 이스마일리와 같은 소수종파와 대체로 좋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게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겉으로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스웨이다(Sweida) 지역에는 자신들의 상징인 드루즈(Druze)별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은 스웨이다(Sweida) 인구의 80%가 드루즈(Druze)이기 때문이다. 해외에 사는 드루즈(Druze)의 경우 무슬림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감추고 산다. 실제로 쿠웨이트에 사는 드루즈(Druze)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반 무슬림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지인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외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드루즈(Druze) 별

(4) 언어

1) 제 1언어

Arabic, North Levantine S- 동부 아랍어라고 불리기도 하며 레반트 지역 (동부지중해해변 100Km구역)에서 사용되는 아랍어 방언이다. 시리아(Syria), 팔레스타인/ 이스라엘(Israel), 요르단(Jordan) 서부지역, 레바논(Lebanon) 등이 레반트에 해당된다.

2) 제 2언어

요르단(Jordan), 팔레스타인, 이집트(Egypt)에 비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외국어에 능하다.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여러 명이 일하는 음식점의 경우 한, 두 명은 영어가 가능하다. 프랑스(France)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일부는 불어가 가능하다.

3) 언어족: 셈어족

4) 종족 언어와 국어와의 관계: 같음

5) 문자형태: 아랍어

(5) 종족인구

1) 지역 내 종족인구: 31만 8,400명 추정²

cf) 기타 인구통계³ UN Syria Population (2006): 19,512,000명

2) 국가 내 타 지역의 동일 종족 분포도: (지역구분, 값(명),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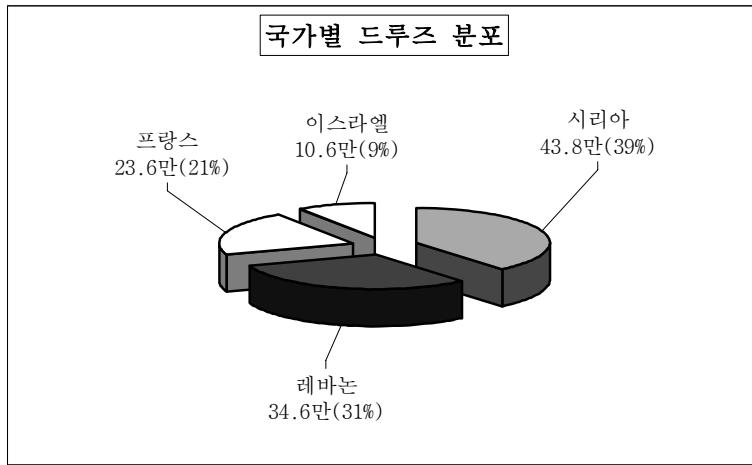
- ① 시리아(Syria) 내 드루즈(Druze) 인구: 43만8천 명
- ② 스웨이다(Sweida) 내 드루즈(Druze) 인구: 약 32만 명
- ③ 다마스커스(Damascus)주(Damascus C.S.): 약 11만 명

² 북한체제를 모델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않음.

스웨이다(Sweida) 전체 인구: 398,000명 * 스웨이다(Sweida) 드루즈(Druze) 비율: 약 80%

³ [http://www.syriantours.net/As-Sweida.asp]

3) 타 국가의 동일 종파 분포도: 국가명, 값(명), 백분율)⁴



2. 역사

(1) 기원 및 형성

드루즈(Druze)는 10~ 11세기 의 이집트(Egypt)에 위치해 있던 파티마 왕조의 여섯 번째 칼리프인 알 하킴(Al Hakim)에 의해 형성된다. 하킴은 당시에 새로운 종파를 만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교의 교리 개혁을 시도 하였다. 이는 11세기 드루즈(Druze)문서에서 조차 '드루즈(Druze)'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 개혁운동은 알 하킴(Al Hakim)을 주축으로 함자 빈 알리(Hamza bin Ali), 알 다라지(Nashtakin al-Darazi) 에 의해 주도 되는데, 이 세 명의 인물은 드루즈(Druze)교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특히, 알 다라지(Al Darazi)는 현재의 드루즈(Druze) 종파의 교리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이름도 드루즈(Druze)교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첫 번째로, 알 하킴(Al Hakim)은 이슬람 파티마 왕국의 6번째 칼리프로서 996년 11살에 칼리프가 된다. 당시 그의 개혁운동은 기존의 이슬람의 교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 었으나 드루즈(Druze)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기에 드루즈(Druze) 종파는 그를 드루즈(Druze)의 아버지로, 엄격한 통일성을 제창한 자로 여긴다. 드루즈(Druze)는 그가 70번씩 환생하여 자신들을 이끈다고 여기며 마지막 날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다. 당시 정통



⁴ [<http://www.joshuaproject.net>] 2006년 자료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분파들은 알 하킴의 개혁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였다. 알 하킴의 개혁안은 노예제 폐지, 일부다처제 폐지, 모스크와 국가의 분리였다. 둘째 인물인 알 함자(Hamza bin Ali)는 대부분의 드루즈(Druze) 문헌의 저자로서 알 하킴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로 지목 받은 사람이다. 그는 헤크마(Book of Hakma)의 저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헤크마는 지혜의 서라는 책으로 드루즈(Druze) 종파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다. 또한 함자는 드루즈(Druze)의 신앙고백인 Tawhid를 제정하고 드루즈(Druze)가 되는 조건들을 정하여 추종자를 동원하여 전도를 하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유산들을 공부하여 드루즈(Druze)만의 독특한 교리를 제정한다. 마지막 인물인 다라지(Nashtakin al-Darazi)는 드루즈(Druze)역사에 있어 매우 모순적인 인물로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즈(Druze) 종파에게 이단시 취급 받아왔다. 다라지는 원래 알 함자의 제자였으나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정치권을 장악하고는 자신을 “Guide of Guides” 라고 선언한다. 이는 모든 지도자보다 자신이 높다는 의미이다. 다라지의 주요한 이단 활동은 함자가 세워놓은 드루즈(Druze)의 문서들을 수정하고 훼손시키서 Tawhid(드루즈(Druze) 신앙고백)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고 추종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알 하킴에게 1019년 처형되었다. 다라지파의 교리는 이전에 하킴과 함자가 세웠던 드루즈(Druze) 교리와 혼합되는데, 모순되게도 많은 연대 기술자들은 드루즈(Druze)와 다라지파의 차이점을 기록하는데 실패하였다. 다라지의 교리는 이전에 함자의 추종자들에게 전하여졌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알 하킴이 다라지의 교리를 수용하여 지지하기에 이른다. 어떤 학자들은 함자와 다라지가 동일인물 혹은 반대로 다라지가 함자의 스승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자와 다라지의 교리가 혼합되어 드루즈(Druze)는 그 나름의 독특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종교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드루즈(Druze) 종파는 알 하킴의 죽음 이후 정통 순니(Sunni)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예멘(Yemen)으로 피신하게 된다. 그들은 예멘(Yemen)에서 드루즈(Druze)를 전하여 두 부족을 드루즈(Druze)종파로 포교한다. 그 후, 이슬람제국의 확장에 따라 이라크(Iraq), 레바논(Lebanon) 이스라엘(Israel), 요르단(Jordan), 시리아(Syria)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드루즈(Druze)인들이 사는 곳은 시리아(Syria)의 스웨이다(Sweida)이다.

시리아(Syria)가 터키(Turkey)의 식민지였던 17세기에, 대부분 드루즈(Druze)는 레바논(Lebanon)에서 스웨이다(Sweida) 지역으로 이주했다. 당시 스웨이다(Sweida)는 주인 없는 땅으로서 소수의 부족들만이 거주를 하였고, 드루즈(Druze)는 별 저항 없이 정착 할 수 있었다. 드루즈(Druze)는 스웨이다(Sweida) 땅을 개척하면서 최고급의 사과와 포도를 생산했고 잉여농산물과 부를 바탕으로 스웨이다(Sweida)지역의 드루즈(Druze)는 매우 강해졌다. 그들은

17세기가 지나기 전에 많은 소수 부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변성했다. 드루즈(Druze)인들은 자신들만의 자치정부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정치제도와 법체를 갖추고 있었다. 자치정부를 수립하려는 드루즈(Druze) 종파의 노력은 1925년에 일어난 시리아(Syria) 대혁명을 거치며 구체화 된다. 1925년의 시리아(Syria) 대혁명은 드루즈(Druze) 역사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프랑스(France)식민군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2년간의 전쟁을 말한다. 혁명은 드루즈(Druze)종파의 아트라쉬(Atrash)가문에 의해서 주도 되는데 당시 가문의 리더였던 파샤 아트라쉬(Sultan Pasha al-Atrash)는 술탄이라 칭함 받으며 치열한 전투를 주도했다.



술탄 파샤 아트라쉬 장례에 참여한 하피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

1925년부터 1927년까지의 전쟁은 결국 프랑스(France)군의 승리로 끝나지만, 드루즈(Druze)종파는 정치적인 자치권을 얻고, 1949년 아빳 시샤클리(Adib Shishakli)가 집권할 때까지 시리아(Syria)내의 가장 강한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1949년에 집권한 아빳 시샤클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합정책을 사용하여 드루즈(Druze)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빼앗고 억압하였다. 그는 시리아(Syria) 내의 드루즈(Druze)와 소수종파들에게 큰 위협을 느끼며 종종 “내 적들은 뱀 같은 놈들이야 그 놈들의 머리는 주발(Juba)의 드루즈(Druze)종파이고 배는 홈스(Homs)이며 꼬리는(Aleppo)지. 그들의 머리만 깨부수면 그 뱀을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군사적인 억압 정책은 드루즈(Druze)의 분리주의 운동을 막았지만, 드루즈(Druze)인들의 마음의 강한 분노와 불만들을 품게 하였다. 이러한

드루즈(Druze)인들의 분노와 자치의 의지는 시리아(Syria)사회에 진출한 드루즈(Druze)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들과 군인들로 새롭게 표출된다. 드루즈(Druze) 출신 군장교들은 1925년 혁명을 계기로 군 사회에 진출한 자들로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 그들은 1954년의 군사 쿠데타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을 꺾박하였던 시사칼리를 몰라내는데 성공한다. 그 후 1963년까지 시리아(Syria)의 정치체제는 종족정치 체계를 거치며 엘리트 경쟁의 통합체제로 발전하는데, 각 종족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지방자치체로서 개인신상에 관한 법은 각 종족의 전통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드루즈(Druze)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시리아(Syria) 국내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963년 시리아(Syria)는 알라위(Alawite)파 군사 세력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해부터 알라위(Alawite)파의 철권통치로 인하여 드루즈(Druze)종파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드루즈(Druze) 종파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라위(Alawite)파의 아사드(Assad) 대령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하마(Hama)지역(Hama) 12만 명 대학살, 정치 인사들의 대규모 숙청, 대통령 신격화 등의 강경책을 썼지만 사회의 기본골격인 종파, 혹은 부족공동체를 무시 할 수 없었고 종파 별 특이성과 특이 법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쓴다.

역사 연혁

- 1025: 알 하킴 칼리프 개혁실시
- 1050: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짐
- 1516: 오스만(Osman) 제국의 통치
- 17c: 레바논(Lebanon) → 스웨이다(Sweida) 지역으로 이주
- 17c: 스웨이다(Sweida) 지역 지역부족과 전쟁 승리 및 번영
- 1920: 프랑스(France) 침략
- 1925: 독립전쟁 시작(2년)
- 1947: 시리아(Syria) 해방- 드루즈(Druze)의 귀환 및 영향력의 증대
- 1964: 알라위(Alawite) 정권과 적대적 관계, 억압당함
- 1973: 3차 중동전쟁 알라위(Alawite)와 협력하여 같이 싸움
- 1973: 현재 정권과 큰 갈등 없이 평화유지

3. 생활조건

(1) 의복

1) 남성들의 전통의상

흰색 게피야(kefiya)라는 스카프를 두르고 아갈(agal)로 머리에 게피야를 고정시킨다. 게피야는 전통복장과 함께 착용하기도 하지만 양복을 입은 채 쓰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 라피(Lafi)는 종교적 위치가 게피야를 쓰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이 착용하는데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다. 라피(Lafi)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원통모양으로 위의 원은 자주색이다. 라피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통복장을 입으며 종교적 위치가 더 높은 사람은 검은색 얇은 옷을 하나 더 입는다. 장로들은 구근 모양의 터번을 쓴다.



장로들의 사진(↑)
라피를 쓴 종교 지도자(→)



2) 여성들의 전통의상

화려한 실로 수를 놓은 치마를 입는다. 대중 앞에서는 반드시 흰색 베일을 해야 하는데 머리에만 한다. 결혼식에서 볼 수 있는 드루즈(Druze) 여성 전통의상은 머리에 착용하는 장신구가 화려하고 보통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든 분들이 입는다.



드루즈 전통의상 (왼쪽에서 세 번째 -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



1930년대 남성의 전통의상

4. 보건위생

(1) 의료시설

스웨이다(Sweida) 시가지에는 병원이 3개 있으며 국립병원은 의사 200명과 간호사 300명을 고용하고 있어 규모가 큰 편이다. 병원 다른 두 곳은 사립병원으로

국립병원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곳에도 50여명의 의사가 있다. 각 도시마다 정부지원의 무료병원과 의료센터가 있고 개인병원도 존재한다.

(2) 질병

특별히 보고되는 질병은 없으나 결막염이 간혹 발견된다. 방문기간 동안 고열, 복통, 설사 등의 유행병이 돌고 있었다. 입국 전 특정 질병 예방 접종할 필요 없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설탕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물/식수

1) 환경오염 및 보호에 대한 생각

대체로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은 스웨이다(Sweida) 지역은 주로 겨울에 내리는 물과 눈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스웨이다(Sweida) 지역은 공기가 맑고 시원해 대기 오염이 거의 없으므로 대기 속 오염물질에 인한 수질오염은 미약하다. 스웨이다(Sweida) 지역을 상징하는 것은 사과와 포도인 만큼 농업용수도 풍부하면서 토질은 검은 흙으로 이루어져 아주 비옥한 땅이다.

2) 식수 공급

정교회 호텔에서 주는 식수는 수돗물을 정수한 뒤 냉온기에서 물을 받아 먹었고 이동 중이거나 멀리 갈 때는 물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이 없을 때는 현지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먹기도 했다. 어느 현지인 집을 가던지 차, 아랍식 커피를 대접받을 정도로 차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다. 집에서 직접 여러가지 차를 재배하기도 했으며 스웨이다(Sweida) 유시프 목사는 녹차 잎을 기르기도 했으나 날씨가 더워 녹차재배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가게에는 차와 관련한 여러가지 주방기구와 컵세트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3) 상 하수도 시설

사람들이 수돗물을 식수로 마실 만큼 상수도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 하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5. 식생활

(1) 주식

‘채식주의자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고기를 먹는다. 음식물은 올리브, 빵, 가지, 콜리플라워, 이집트(Egypt) 콩, 쌀, 감자 그리고 과일이다. 양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스웨이다(Sweida)에서 구운 양고기, 구운 닭고기 등을 먹을 기회가 있었으며, 식사시간이 대체로 한국보다 늦은 경우가 많았다. 아침식사는 8시부터 10시 사이, 점심식사는 2시나 3시 정도이고 저녁식사시간은 9시 정도이다. 아침식사 혹은 저녁식사로 코브즈와 여러가지 소스를 곁들여 먹기도 한다. 소스에는 갈릭마요네즈, 노란콩으로 만든 소스 등이 있고 각종과일, 계란 등을 빵에 싸먹는다. 특히 스웨이다(Sweida) 지역은 각종 과일이 풍성하고 저렴하며 맛이 좋다.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배, 체리, 개구리참외, 수박 등을 많이 먹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들이 자주 먹는 셰르마 종류는 닭고기, 소고기, 소시지, 계란 등이 있다.

(2) 결혼식 음식

결혼식에서는 주로 ‘멘시프’를 먹는다(리서치 기간 중 참여한 결혼식에서 매번 ‘멘시프’가 나왔다). ‘멘시프’는 지름 약 80cm 정도 되는 스테인레스 그릇에 담겨 나오며 가문의 리더가 노란색 요구르트 소스를 붓고 나서 식사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쌀밥을 떠먹고 손으로 걸레빵을 찢은 뒤 찢은 양고기를 싸먹는다.

(3) 식사 예절

종교지도자가 있으면 종교지도자가 먼저 먹은 후에 식사를 시작하거나 가문의 리더가 식사를 시작한 뒤 식사를 시작한다. 결혼식에서 남녀가 따로 식사를 하는데 남자들은 응접실에서 여자들은 안방에서 따로 먹는다. 간혹 손으로 먹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

(4) 주거

1) 주거형태

특별한 주거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한 후에는 대개 독립을 한다. 하지만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가옥형태

집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응접실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응접실 벽을 따라서 불박이 의자가 길게 둘러져 있으며 손님용 미니 테이블이 갖추어져 있다. 테라스문화가 발달해 있는 점도 이채롭다. 마치 집안의 응접실을 바깥으로 옮겨놓은 듯한 불박이형 의자가 있는 테라스 형태와 플라스틱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테라스형태의 집도 있다. 그리고 더운 공기를 피하기 위해 천장이 높은 경우가 많고 정원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직접 여러 가지 과일과 나무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은 보통 2개가 있는데 좌변기, 샤워실이 있는 화장실과 재래식화장실로 2개가 있다. 좌변기화장실에는 높이가 1m 60cm

정도되는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채래식화장실은 구조가 우리나라 채래식화장실과 달라서 좌변기 대신 구멍이 있으며 구멍 안쪽에 물이 채워져 있고 비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호스가 있다.



응접실



테라스

3) 냉 난방

천장에 긴 날개를 가진 선풍기를 갖춘 경우가 많으며 에어컨이 있는 집은 많지 않다. 난방은 개별식 난방으로 전기난로를 사용한다.

4) 도시와 농촌의 차이

살카드(Salkhad)는 스웨이다(Sweida) 내 주요도시 중 하나이며 우리가 방문한 곳은 살카드(Salkhad)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근처에 살카드(Salkhad)성이 위치한 곳이다. 올리브나무, 사과나무 등을 재배하는 광경이 넓게 펼쳐진다.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떨어지고 건물에 흙먼지 많이 묻어난다.

(5) 지형이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스웨이다(Sweida)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은 현무암이 넓게 분포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건축물, 건물들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중해성기후에 용암대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이곳의 농작물이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더 맛있기 유명하며 농업이 활성화 되어있다. 서쪽(평양)은 밀, 시리얼, 동쪽은(산지) 사과 포도농사를 하고 있다.

(6) 개발 정도

〈표-1〉개발 정도 비교표

항목	개발 정도	
	도시/중심지	변두리/시골/마을
보건위생	3	1
교육	3	1

균형있는 식품	3	1
방송국(라디오/TV)	3	U
좋은 식수	2	U
주택	3	2
통신(전화/인터넷)	1	U
전기시설	3	U
공공시설	2	1

0: 없음 1: 빈약 2: 그저 그렇다 3: 충분함 U: 알려지지 않음

6. 문화

(1) 문화적 특성

남녀가 매우 평등하며, 신사적이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주할)은 서양의 문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의복착용도 매우 자유롭다. 여느 중동문화처럼 한낮에는 낮잠시간이 있으며 기상시간도 매우 늦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며 밤늦게 활동을 한다.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매우 여유로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긴다. 드루즈(Druze)가 아닌 사람들을 쉽게 수용하며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교리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그들의 사회는 몇 개의 계급과 서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폐쇄적이다.

(2) 예술

1) 음악

주로 결혼식, 약혼, 모임 등의 행사 때 연주되며 많은 요즘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음악을 트는 방식이다.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여 즐기는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간혹 피리를 이용하여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정도이다. 음악의 장르는 전형적인 아랍음악이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관례 때 연주하는 특별한 조성과 박자의 노래가 있다. 현악기인 lute가 가장 많으며 관악기인 Mizmar, Nai, Mejwez, 타악기인 Drum, Daff을 쉽게 볼 수 있다.

2) 춤

드루즈(Druze)의 전통춤은 남녀가 섞여서 원을 이루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춘다. 왼발을 앞에 놓고 경쾌하게 스텝을 밟는데 조금만 관찰 하고 참여한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춤이다. 춤은 왼발을 먼저 옮기고 다시 오른발을 옮기는데 두 걸음을 옆으로 옮긴 후 세 번째 걸음은 왼발을 공중으로 차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하며 춤이 격해지면 매우 경쾌하게 어려운 스텝과 점프를 한다. 춤의 리더는 드루즈(Druze)염주를 들고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돌리는데 그의 동작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이 춤을 진행한다. 춤추는 원 중앙에는 흥을 돋우는 사람이 박수를 치던지 두 손을 들어 흔들며 경쾌하게 발과 무릎을 사용한 춤을 춘다. 중앙에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을 돌며 춤추던 사람들이 흥이 나면 아무나 나와서 추는 것이다. 같은 춤을 추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매우 우아하게 때문에 남녀가 어울려서 매우 진전하며 아름답다. 드루즈(Druze)는 남녀가 같이 춤을 추며 서로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다.



3) 연극

스웨이다(Sweida) 중심지에서 차로 15분 정도 이동하면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노천 공연장이 있다. 언덕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리 놀이공원, 스타디움이 보이고 평소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상태가 깨끗하고 청소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아 관리가 계속되고 있고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하다.



(3) 공휴일 및 축제

1) 공휴일

- ① 주중 휴일: 금요일
- ② 1월1일: 설날
- ③ 3월 8일: 3월8일 혁명 기념일
- ④ 3월 21일: 어머니날
- ⑤ 4월 17일: 독립기념일
- ⑥ 5월 1일: 노동자의 날
- ⑦ 5월 6일: 순교자의 날
- ⑧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 축제

- ① 4월: 라타키아(Lattakia) 꽃축제
- ② 5월: 다마스쿠스(Damascus) 국제 꽃박람회
- ③ 7월: 스웨이다(Sweida) 포도 축제, 알레포(Aleppo) 숨 축제
- ④ 9월: 다마스쿠스(Damascus) 국제박람회
- ⑤ 10월: 보스라 축제
- ⑥ 11월: 다마스쿠스(Damascus) 영화 축제, 극장 축제

(4) 결혼

드루즈(Druze)는 결혼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이나 외부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대부분의 교제는 마을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일처제는 드루즈(Druze)의 결혼전통이다. 신랑, 신부는 서양식 결혼 의상을

갖추고 있으며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통복장을 한 경우가 많다.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많은 젊은이들은 노출이 상당한 파티의상을 입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요즘은 드루즈(Druze)가 아닌 외부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예전에는 드루즈(Druze)와 결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을 지쳐서 엄격히 결혼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많이 붕괴되고 있다.

(5) 장례

드루즈(Druze)의 장례식장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진다. 장례식장은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닮고 있으며 중앙에 죽은 자를 놓는 제단이 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의 시체를 중앙단에 놓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유가족들을 위로한다고 한다. 장례는 드루즈(Druze) 종교 리더가 주관하게 되는데 그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생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



(6) 예절

1) 인사법

이들은 매우 친절하게 인사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중동의 일반적인 인사법을 따른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마르하반’ 이라고 인사하는 방법, 악수를 하고 세 번 네 번에 걸쳐 서로 볼에 키스를 하는 방법(동성끼리), 그냥 손을 들어 ‘마르하반’ 또는 ‘살람’ 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꽤 길다. 첫 인사 외에 ‘기왁(How are you?)’ 등 수 많은 인사말을 한 명씩 모두에게 인사해 주며 ‘아할란’ (welcome) 등 많은 수식어를 키스하는 동시에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가 길기 때문에 서로가 ‘알라’ (Hurry)를 외치며 웃으며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

2) 일반 예절

노인과 연장자, 종교적 리더들을 매우 존경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한다. 손님이 오면 으레 차와 아랍식 커피, 다과를 대접하며 응접실에서 한동안 대화를 나눈다. 외국인을 가정 안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이 경우, 초대 받은 사람은 가족의 일원으로 혹은 가족의 친구로서 초대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종교 예절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종교인에게는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공적인 자리에서 계급이 높은 종교인은 항상 먼저 먹고 먼저 앉으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7) 금기

드루즈(Druze)는 무슬림과 다르게 평등을 강조하는 종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과도한 보호의식이 없다. 그래서 현지인 여성과 대화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드루즈(Druze)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하는 행위는 유의하는 것이 좋다. 현지인 여성들은 허리 아래부터 발목까지 노출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날씨가 더울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 반바지는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칼(Uqqal) 남자는 배우자, 딸, 여동생, 어머니가 아닌 여성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제 3자 없이는 마중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칼 남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개 우칼은 라피(Lafi)를 쓰고 검은색 전통모자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8) 마스크

1) 인터넷

보통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00년에 인터넷 보급을 시작했지만, 동네마다 인터넷 카페가 보급되어 ADSL 서비스가 가능한 곳도 있다. 아직 보통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비용이 비싸다. 컴퓨터 구입비용은 LS4만 5천 (= \$900) 노동자의 7달치 월급에 해당한다.

2) 휴대폰

Syriatel, Areeba 두 개의 모바일 회사가 대표적이며, 국영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달리 GSM망식이다. 특히 최근 Areeba의 광고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휴대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의 형성이 형성되어 집권세력인 알라위(Alawite)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다.

(9) 문화 변동

30대 이상 여성들이 전통의상을 입는 것은 보기 힘들다. 북한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성TV와 인터넷이 어디서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교육열이 높은 경우 대체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사회 문화 변동도 적은 편이다. 드루즈(Druze)의 경우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마을마다 학교가

없는 곳이 없으며 학비도 비싸지 않아 자녀들을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시키는 편이다. 스웨이다(Sweida) 도심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활기가 넘쳐 보이며 보통의 중동문화에서 쉽게 느끼는 억압은 찾아볼 수 없다. 밤에 젊은이들이 스포츠 카에 친구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는 것, 거리를 함께 거니는 연인들, 기쁨지게 머리를 넘기고 무리를 지어 앉아 있는 청년들을 볼 수 있다.

7. 사회 구조

(1) 가족 구조

가문을 매우 중시하며 핏줄끼리 가까운 지역에서 마을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큰 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800~ 900명 정도의 가족이 있으며, 마을에서 가문의 사람들이 스웨이다(Sweida)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면 멀지 않은 촌수를 가지며 삼촌, 조카인 셈이다. 가문의 리더는 대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최고 연장자인 사람이 맡게 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가문을 대표하여 많은 일을 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드루즈(Druze)는 가문회의를 통하여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에게 동등한 이익이 가도록 협상을 한다. 리더와 장로들이 참여하며 가문의 대사부터 한 가정의 자동차 구입까지,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가문전체를 관리한다.

(2) 리더쉽, 지배 구조

1) 사회조직

드루즈(Druze)인 사회는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로가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지식인인 우칼는 15%, 평민인 주할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주할은 40세 이하의 보통사람들로 그 뜻은 ‘무지한 자’이다. 장로인 아사위드는 50세 이상인 자로 그들 종교의 모든 비의를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들은 흰색 터번에 검은색 로우브를 입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술, 담배, 육설, 여자관계는 삼가야 하고 턱수염을 잘라서도 안 된다.

히크마(hikma:드루즈(Druze) 종교의 신학이론)는 종교적으로 훈련된 엘리트 계층인 ‘the uqqal’ 만이 알고 있고, 대부분의 드루즈(Druze)인은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며 무지하다는 뜻의 ‘juhhal’ 이라고 불린다. ‘uqqal’의 50분의 1만이 완전한 교육을 받아 최고 수준 이르러 귀족이란 뜻의 ‘ajawid’라고 불리며, 드루즈(Druze)족의 실질적 리더로 일하게 된다.

‘uqqal’은 ‘juhhal’의 신앙적인 면을 돌보며, 그들만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의 밤에 드루즈(Druze) 마을 변두리에서 이뤄지는 종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드루즈(Druze)를 위해서,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는 Jabalu d-Duruz 라는 산이 많은 곳이다. ‘juhhal’은 무슬림의 종교의식을 거의 따르지 않으며, 기도

또한 모스크에서 이뤄지지 않고, 라마단 기간의 금식도 없으며, 성지순례를 할 필요도 없다.

- 2) **이웃과의 관계/ 의사소통 실상:** 스웨이다(Sweida) 내 거주민들과 종교와 관계없이 이웃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주변 민족과의 관계**

현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알라위(Alawite)와는 이전에는 73년 이전,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73년 중동전쟁에서 같이 전쟁을 한 이후 벌어졌던 관계를 개선하였다. 아직도 예전에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남아서 인식이 좋지 않다. 알라위(Alawite)를 규정하길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군대에 많이 지원을 했으며 혁명 이후 나라를 집어삼킨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아(Shiah) 무슬림들과의 관계는 좋지만, 순니(Sunni)와 무슬림에게는 자신들을 핍박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경계한다. 비록 이들이 타종교를 미워한다 해도 드루즈(Druze)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소수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는 다수 종교의 신자인양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스로를 화합하게 하는 자, 하나되게 하는 자로 부르며 종교로 인해 싸우지 않고 주변 다른 종파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땅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해서 이스라엘(Israel)에 자신들을 건주기도 했다. 땅으로 인해 많은 민족들과 싸우기도 했으며 이스라엘(Israel)이 골란고원(Golan Plat.)을 차지했을 때도 이스라엘(Israel) 시민임을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할지언정 자신들이 개척한 땅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4) **법정 기관/재판 처벌**

일반적으로는 시리아(Syria) 법체계를 따라 법적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는 드루즈(Druze)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8. 교육

(1) **문맹률**

드루즈(Druze)는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리아(Syria) 평균 문맹률보다 훨씬 낮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Syria) 평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남녀 평균, 1997년 72%, 2001년 76% 정도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15%~ 20% 정도 상회한다.

(2) **가정교육:** 가정교육은 6세부터 종교교육과 함께 시작되며 자세한 것은 모른다

- (3) **유아교육:** 2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으며 영화, 동화책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사용 할 줄 알며 시설들도 좋은 편이다. 정교회에서도 부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세부터 초등교육을 받기 전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교육받는다
- (4) **초등교육:** 시리아(Syria)의 교육법을 따르고 있으며, 6년제이다
- (5) **고등교육:** 스웨이다(Sweida) 지역에는 대학교가 없으며 대학교에 준하는 기술자 과정이 있다. 마을마다 고등학교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닌다
- (6) **사교육:** 스웨이다(Sweida) 중심가에 어학원이 있으나 다른 곳은 보지 못했다
- (7) **교육의 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숫자는 많지만 졸업한 학생들을 수용할 고등교육기관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1시간 가량 떨어진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다.

9. 청소년/여성/노인

(1) 청소년

1) 교육 현황:

드루즈(Druze)인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아서, 거의 100%에 가까운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읽고 쓸 줄 알며, 학교를 보내는 가정들이 많아서 드루즈(Druze)인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2) **노동:**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식당,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

3) **청소년들의 성의 대한 인식:** 실질적인 리서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결혼식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춤을 춘다.

4) **도덕성 기준:** 드루즈(Druze)인의 율법은 깨끗하고 순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

5) **가족의식:** 매우 강하며 가족간의 결속력이 매우 깊다. 젊은이들은 가문과 가족행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2) 여성

1) **여성교육 실태:** 남녀차별 없이 교육한다.

2) **여성의 지위와 역할**

여성은 영혼이 맑은 존재로 남자보다 훨씬 구원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된다. 드루즈(Druze)의 교리는 여자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자를 존중하고 멸시아(Shiah)지 말고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라고 한다. 여성은 자신의 직업과 삶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를 가지며, 남성만큼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여성들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 몇 명은 높은 위치에 있다. 드루즈(Druze) 사회에서 여성은 hilwah(기도하는 집)에서 남자와 구분하여 앉게 되며 uqqal의 경우 남녀의 구분과 분리가 분명하다. Uqqal 남자는 배우자, 딸, 여동생, 어머니가 아닌 여성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제 3자 없이는 마중 나갈 수도 없다. 그들은 여성, 남성 모두 음란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드루즈(Druze) 거주지역을 벗어나서 사회로 진출 할 경우, 중동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암묵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가정과 사회에서 기대하는 여성상**

가문의 지도자들은 여성에게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한다.

4) **부녀자에 대한 인식/성차별:** 없다.

5) **여성문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중동문화권 안에서의 가부장적 압박과 가문의 강요는 비슷해 보인다. 안 보이는 억압이 있다고 한다.

(3) 노인문제

1) **노령화**

드루즈(Druze)족의 거주지역인 스웨이다(Sweida) 지역은 청정한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100세까지도 사는 사람들도 있다.

2) **노인공경**

노인은 드루즈(Druze)의 교리에 따라 당연히 존경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노인공경은 리더와 서열 다음에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종교적으로 높은 젊은이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한다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노인보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

10. 경제

(1) 주 산업

시가지를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과일, 채소, 밀을 재배하고 가축(양, 염소, 소)을 사육한다. 최근 많은 드루즈(Druze)인들이 공업과 상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도시 근교에서 통근을 한다. 드루즈(Druze)인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팔기 위해 도시와 마을 근교로 간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소매상인들이다.

(2) 기타 산업: 살카드(Salkhad) 지역 근처에 맥주공장이 있다.

(3) 생산물/ 천연자원: 벽돌, 시멘트 등을 생산한다.

(4) 경제 상태 및 발전 수준

컴퓨터, 자동차 등의 공산품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많이 비싼 편이며, 스웨이다(Sweida) 중심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경제 불평등: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보인다. 국가의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 중 하나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규제, 비밀경찰 등의 존재는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권력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6) 경제 개발 필요 분야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확보가 . 그러나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크므로 확실한 사건 없이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비밀경찰 등은 나라의 재정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다. 이미 주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잘 보수하고 보존해서 이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1.종교

(1) 원시종교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흡사 성황당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다.

(2) 현재 주종교 현황:

드루즈(Druze)인들은 매주 목요일에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 외부인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드루즈(Druze)교의 교리는 은밀히 전수된다. 이들은 미즐리스라고 불리는 예배당을 가지는데 그곳에는 리더의 무덤과 유품들이 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미즐리스를 방문하여 선물을 주고 그 표시로 천을 가지고 오기도 하며 선지자들과 리더의 무덤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이 아닌 성경과 꾸란 속 선지자에게 기도들 드린다. 드루즈(Druze)는 중보기도의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식이나 행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며 그 사람은 알라에게 중보기도를 한다. 드루즈(Druze)인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며 장로인 아사위드만이 종교의 교리들을 알고 있다. 종교인이 아닌 주할은 교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교리를 알고자 하는 외부인은 더욱 경계하며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려한다



드루즈(Druze)의 모스크

(3) 종교적 세계관

그들은 표면적으로 자신이 시아(Shiah) 무슬림의 한 종파라고 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카 암 자만(Kar Am Zaman)이라는 계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에 대한 복수로 무슬림의 피를 흘리는 것이 권유되기도 한다. 그들이 자신을 무슬림이라 소개하는 것은 소수종파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꾸란과 성경을 믿고 있지만 헤크마라는 자신들만의 경전을 신봉하며 세상의 끝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심판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세기의 시아(Shiah)파 이슬람과 이스마리파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 철학, 기독교, 힌두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힌두와 그리스철학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무슬림과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기도시간과 예배시간이 따로 없다.

1) **하나님**

창조자, 사랑의 하나님, 선택하신 분, 계획을 가지신 분 등 기독교의 하나님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개념을 사용한다.

2)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아담 이전에 드루즈(Druze)의 두 번 인물인 함자 빈 알리(Hamza bin Ali)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빛에서 창조되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드루즈(Druze)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파괴하며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소개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모든 열방의 구원자이며 복의 통로라고 주장했다.

3) **리더와 계급**

드루즈(Druze)에는 5명의 리더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5개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이다. 드루즈(Druze)인 들은 현재 3명이 환생해서 살아있다고 믿고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환생했지만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가장 최근까지 리더였던 Elzaman Kaem은 사망했으나 어딘가에 다시 환생했다고 한다. 드루즈(Druze) 사회는 우칼(Uqqal)과 주할(Juhal)의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뉘고 우칼 그룹 속에 많은 비밀 계급이 있다. 이 계급체계는 매우 드루즈(Druze)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 더 높아지며 매우 비밀스러운 것으로 취급 받는다. 이들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개인적인 심사와 시험, 훈련을 2년 혹은 3년의 과정에 거쳐서 가지게 되며 가장 높은 단계인 아사위드(Asawid)의 단계에 까지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계급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불 분명하다.

4) **비밀성**

드루즈(Druze)인들은 개인의 비밀과 은닉을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다. 이들은 비밀로 행한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3단계의 진리**

드루즈(Druze)의 교리구조는 3단계로 나뉘는데 이 3가지는 Exoteric(모두 이해할 수 있는), Esoteric(선택된 소수인만이 아는, 비밀의) Luminary(지도자)의 단계이다. 보통의 종교들이 보편적 경전의 진리와 그 속의 비밀까지의 정도라고 하면 드루즈(Druze)종파는 이 두가지 단계 위에 또 다른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의 지식이 높을수록 그것을 아는 자들의 수가 적고,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강한 권위를 가진다.

6) **직분**

드루즈(Druze)에는 선지자, 조력자(helpers), 지도자가 있는데 각각 완전한 영성을 얻기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루즈(Druze)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존경한다. 이들은 각자의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다. 각 선지자들은 일부의 진리만을 세상에 전해왔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완전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드루즈(Druze)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반적 진실 하에 숨겨진 메시지(esoteric message)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각 선지자들을 위해 조력자를 주셨다고 믿으며 단호한 유일신 교리를 전파하며, 일반적인 메시지 속의 숨겨진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각 시기에 드루즈(Druze)는 세가지 단계의 해석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있었노라고 주장한다.

7) 히크마(Book of Hakma)

드루즈(Druze) 교리는 풍부한 예시들과 특별한 도덕 교훈, 개인, 공동체 행동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이 필사본으로 30여종 정도 되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가지의 필사책만 인용한다. 지혜서신들은 드루즈(Druze)의 완전한 경전을 구성하며 두, 세 개의 원고를 구성하기도 한다. 거의 1000여년간 드루즈(Druze)는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왔고 필사본 원고들은 1017- 1043 사이에 쓰여져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리, 이중 구조는 공동체 겪었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intelligence/reason: 지성/이성 (green)

soul: 영혼 (red)

word: 말씀 (yellow)

precedent: 관례 (blue)

immanence: 내재 (white).

8) 구원관

무슬림은 물질적인 천국을 기대하지만 드루즈(Druze)는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세상이 끝나게 된다. 드루즈(Druze)의 창시자인 알 하킴(Al Hakim)과 함자(Hamza)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종교와 드루즈(Druze)를 제외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며 드루즈(Druze) 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9) 사후세계관

환생: 드루즈(Druze) 종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혼의 수를 제한 시켜 놓으셨다고 믿는다. 누군가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이가 죽어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구 수는 줄거나 늘지 않고 환생을 통해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9개월 된 신생아에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며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에 있는 인간들을 지구에 보내신다고 해명하는 드루즈(Druze) 신학자도 있다. 환생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적 평등을 이루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삶은 그 환생한 삶을 회계 했을 때 동일한 부와 연수를 살고 동일한 가난과 아픔을 겪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그를 무시할 수 없고, 늙은이를 존중한다. 늙은 이를 존중하는 것은 그가 현생의 삶에서 더 높은 진리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10) 용서에 대한 개념

드루즈(Druze)는 사람들의 죄가 금식이나 기도로 용서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가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이다.

11)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 히크마의 법전으로 판단한다.

12.기독교 상황

(1) 기독교인(복음화율)/등록교인

스웨이다(Sweida) 지역에서 방문한 곳에 복음주의 침례교 교회가 4개 있으며, 그 2교회는 올해(2006) 50년 동안 닫았던 문을 새로 열었으며 많은 수의 드루즈(Druze)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 특히, YWAM출신의 사역자들과 몇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가족단위 혹은 가문단위로 예수님을 집단 영접하고 있으며 현지인 목사들의 열정적인 기도모임과 찬양모임이 있다.

(2) 종족언어 성경: 아랍어 성경 있음

(3) 종족언어 영화: 있음

(4) 종족언어 기독교 방송매체: TV, Radio

(5) 교회형태:

- 1) 스웨이다(Sweida) 교회(침례교): 교회 건물과 목사님 사택 건물(사용하지 않음), 넓은 공터로 이루어짐
- 2) 살카드(Salkhad) 교회(침례교): 교회 건물과 건물 안에는 방 1, 화장실이 있음

- 3) 사하바(Shahaba) 교회(침례교): 교회 건물과 건물 안에는 방 1, 화장실이 있음
- 4) 에라(Era) 교회: 교회 건물과 목사님 가정을 위한 사택



살카드 교회

5) 교회 성장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나 유시프 목사가 사역하는 살카드(Salkhad), 사하바(Shahaba) 교회는 몇 년 동안 문이 닫힌 채 방치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재정지원을 받고, 또 자신의 사비를 털어 보수하신 교회들이다. 스웨이다(Sweida) 교회는 목사님의 가정집과 멀지 않아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살카드(Salkhad) 교회에는 16살 이하로 보이는 아이들이 34명 있으며 의자가 모자랄 정도이다. 사하바(Shahaba) 교회는 예배 드리는 날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역시 아이들을 위주로 한 예배가 이루어 지고 있는 듯 했다.

6) 기독교 반응도

시리아(Syria)는 각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포교활동을 막는 나라이다. 즉 자신의 종교를 고수하되 전도를 하는 행위는 막는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는 오랫동안 서로 공존할 수 있었고 드루즈(Druze)의 경우 정교회와 오랜 시간을 공존해 왔다. 게다가 드루즈(Druze)의 교리는 포교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며 언제나 방관하는 태도를 지닌다. 사실, 드루즈(Druze)인들 내에서의 반응보다는 정부의 감시와 핍박이 심하다. 목사들과 교회에 대한 정보부의 조사와 비밀경찰들의 활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전도 활동과 교회부흥을 막으려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7) 종교적 변화에 대한 개방정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각 계층의 드루즈(Druze)인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 리더와 지도자들은 저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하위계층의 드루즈(Druze)들은 별 거부감 없이 복음을 듣는다.

- 8) **사역단체:** 시리아(Syria) 침례회, YWAM, 레바논(Lebanon) 침례회
- 9) **선교사수:** 조사 없음

13.참고 자료 목록

<http://www.syriantours.net/As-Sweida.asp>

<http://www.joshuaproject.net>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